

레깅스(leggings)는 주로 요가, 에어로빅 등을 할 때 입는 발부분이 없는 타이츠 모양의 하의를 말하는데, 요즘 레깅스 패션이 확산하고 있다. 이에 레깅스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소개한다



3



레깅스 입고, '일상생활 생활 공간(영화관, 커피숍 등)에 갈 수 있다' 34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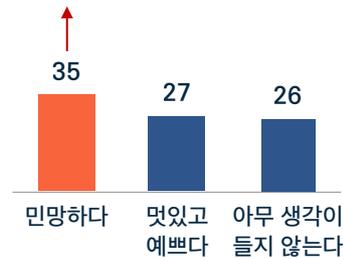
- 전국의 20-59세 남녀 4,011명을 대상으로 레깅스를 입고 갈 수 있는 곳을 질문했는데, '야외 운동(조깅, 등산)을 51%로 가장 높게 꼽았고, 그 다음으로 '헬스장' 43%로 답했는데, 특히 3명 중 1명 이상(34%)은 '일상생활 공간(영화관, 커피숍 등)에도 입고 갈 수 있다'고 응답해 자신감을 보임. 심지어 레깅스 입고 '회사'에도 갈 수 있다는 응답도 8%로 나타남
- 반면 레깅스를 입은 사람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물어본 결과, '민망하다' 35%로 가장 높았으며, '멋있고 예쁘다' 27%, '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다' 26% 등도 적지 않게 응답함
- '민망하다' 의견은 30대 33%, 40대 39%, 50대 41%로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

[그림] 레깅스 복장으로 갈 수 있는 장소 (중복 응답) (%)



[그림] 레깅스 입은 사람을 보았을 때 인식(중복 응답) (%)

30대 33%, 40대 39%, 50대 41%



*자료 출처 : 조선일보 '소개팅에 레깅스 입고 가도 되나요?', 2020.07.04. (전국 20-50대 남녀, 4,011명, 온라인 조사). https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20/07/03/2020070303056.html

● 레깅스, '최근 한 달간 입은 적 있다' 37%

- 최근 한 달간 레깅스를 입은 적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, 37%이 입은 적이 있다고 응답해, 레깅스 착용률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남
- 레깅스를 입은 이유에 대해서는 '편해서'가 47%로 가장 높았고, '운동에 도움이 되어서' 27%, '레깅스 패션이 예쁘고 멋있어서' 12%, '몸매에 자신이 있어서' 10% 등의 순으로 나타남

[그림] 최근 한 달간 레깅스를 입은 경험 (%)



[그림] 레깅스를 입은 이유 (%)



*자료 출처 : 조선일보 '소개팅에 레깅스 입고 가도 되나요?', 2020.07.04. (전국 20-50대 남녀, 4,011명, 온라인 조사). https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20/07/03/2020070303056.html